

경제

추석 상품권 매출 '들썩' 기업 선물 '잠잠'

과업 몸살 산지 구매·저가형 세트 늘어 외부 판촉 늘리고 직원 선물은 최소화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지역 유통가에 상품권 매출이 들썩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직원 선물용 선물세트 예약은 예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추석 선물을 구입하려는 기업들도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산지구매를 하거나 저가형 선물세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경기 회복이 더딘데다,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의 과업 여파로 협력업체들까지 추석 준비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의 기업 선물 구매 키워드가 '비용절감'이었다면, 올 추석은 '판촉강화'와 '직원 선물 비용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백화점들의 추석 전략도 상품권 판촉 강화와 저가형 선물세트 준비 등으로 다채로워졌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지난해부터 추석 TF팀을 꾸려 상품권 목표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30% 높여 판촉 활동을 펼쳤던 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객상품권의 초반 매출 실적이 지난해 추해보다 2배가량 높았다. 선물세트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대상으로 구매를 예약한 경우가 없었지만 1만~3만원대 저가형 생활용품 세트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어 선물세트 가격대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17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벌여 기업 특판 매출이 지난 추석보다 10% 늘었다. 상품권의 경우 3천만원권 3매, 1천만원권 6매, 300만원권 19매가 팔리는 등 고객상품권의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 선물세트의 경우 친환경 과일 혼합 세트나 정육세트, 알뜰 생활용품 세트 등 중·저가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추석 특판 매출이 17%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7월부터 법인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상품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나 늘었다. 기업들의 대외용 선물 매출주변이 예년보다 빨라기 때문이다. 이밖에 비누, 샴푸세트 등 저가형 생활용품에 대한 상담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기업들이 추석 1~2주 전쯤에 추석선물을 본격적으로 구입하다 보니 아직까지 기업특판 실적은 저조한 편이지만 특판 초반 실적은 지난해 추해보다 좋은 편"이라며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경기회복이 더뎈다. 추석 특판 매출이 생각만큼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추석상품 점검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일 광주시에 한 대형 유통점에서 잔류농약 성분 검사를 위해 과일 등을 수거하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재래시장 <백화점> <마트>

<10만3천원> <15만6천원> <16만원>

광주 주부클럽, 25개 추석 제수용품 조사

올 추석 제수용품은 재래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광주시지회가 한우, 계란, 두부 등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대추, 토란, 약과 제외)을 비교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 4곳의 평균 비용이 10만3천393원으로 대형마트 10곳 평균 16만544원보다 54.8%가 싸고, 백화점 3곳 평균 15만6천591원보다 51.4% 저렴했다. 재래시장의 경우 한우(1등급), 도라지(국내산·400g), 도라지(국

내산·400g) 등 11개 품목이 싼다. 대형마트는 시금치(400g), 파(1단), 계란(30개), 밀가루, 두부 등 7개 품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를 동안 이루어졌다. 주부클럽 측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조사를 거쳐 평균 비용을 발표할 예정이나, 추석이 다가올수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1차 조사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제수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고의로 출하 시기를 늦추거나 가격인상 등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명절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추석 제수용품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몇 개 품목이 빠졌기 때문에 2, 3차 조사까지 해봐야 정확한 추산 물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올 식품값 9.5% 올라 11년만에 최고치

한은·통계청 분석

올해 들어 8월까지 식료품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10%에 육박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체 소비자물가의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평균 3.0%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에 비해 1.7%포인트 낮다. 그러나 식료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평균 9.5%로, 작년 같은 기간의 3.9%보다 2배 이상에 이르렀다. 이 상승률은 1~8월 기준으로

1998년의 9.7% 이후 가장 높다. 지난 1998년에는 환란 직후 원·달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해 물가가 상당히 불안했다. 1~8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년 3.4% ▲2004년 9.4% ▲2005년 4.0% ▲2006년 0.0% ▲2007년 1.9% 등이었다. 출하 또는 출고가격인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은 올해 1~7월에 평균 11.9%로 작년 동기의 3.4%에 비해 3.5배에 이르렀다. 이 오름폭은 2004년 같은 기간의 12.0% 이후 가장 높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자재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올봄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대체로 올랐다"면서 "앞으로 태풍 등 기상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1~8월 평균)을 보면, 닭고기가 28.2%에 이르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8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시지(20.4%), 어묵(19.5%), 우유(31.7%), 양념장(16.7%), 케첩(24.4%) 등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상품권도 작고 세련되게

5만원권 크기에 맞춰

현대백화점이 추석을 맞아 상품권을 지난 6월 출시된 5만원권 신권 크기로 새로 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5만원 신권을 비롯해 새로 출시된 지폐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지갑 크기도 당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품권도 기존보다 가로 세로 4mm씩 줄인 가로 154mm 세로 68mm인 5만원권에 맞춰 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주로 유통되는 5천원, 1만원 상품권 사이즈를 1만원 신권 지폐(148mm x 68mm) 크기로 지난해 변경했다. 현대백화점 박민희 재무팀장은 "새 상품권은 현재 유통되는 지폐 중 최고액권인 5만원권 사이로 제작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유통업체 '추석 알바' 모집

추석을 앞두고 지역 유통업체들이 아르바이트 인력 모집을 하고 있다. 9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올 추석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11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급여는 시간당 4천300원으로 상품진열·정리, 배송·접수, 포장, 운반, 배달 등을 맡게 된다. 문의 062-360-1058.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석선물 특별행사' 기간으로 재테크 상품 배송, 상품권 포장, 상담·접수 등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인력 100~120여명을 모집한다. 급여는 하루 4만5천~5만원 수준이며 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062-

221-0322~3.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할 아르바이트 사원 45명을 모집한다. 주요 업무는 선물상품 배송, 배송 접수, 해피콜, 상품권 포장 서비스, 상품출고 및 배달준수, 카드 수거 등이다. 문의 062-510-7959. 이밖에 이마트는 각 지점별로 김, 포장, 배달 등 업무 담당자 10여명, 롯데마트도 1점 포당 10여명씩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계획이다. 각 점포별로 현재 지원서를 접수 받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상의 "지역 제조업 4분기 자금사정 악화"

자금사정지수 92

광주 기업들의 올 4분기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기업 자금사정지수(FB-SD)'가 '92'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지수(FBSI·Business Survey Index on corporate Finance, 기준치=100)는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어면 전 분기에 비해 이번 분기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을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90)과 중소기업(93) 모두 기준치를 밑돌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고 항목별로는 자금수요(111)는 사실상 100을 전 분기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금조달 시장 상황(93)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주식 발행(106)을 통한 자금조달은 호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내부자금 활용(48.4%)과 금융권 대출(45.1%)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기업어음 발행(4.4%), 회사채 발행(2.2%) 등

의 순이었다. 지역 기업들은 자금 관련 예로요인으로 매출채권 회수 지연, 환율 관리 대책 부재, 까다로운 대출조건,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족 등을 들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inancial indicators table: 코스피지수 1,607.77 (-11.92), 코스닥지수 520.20 (-6.65), 금리 (국고채 3년) 4.29% (-0.02), 원·달러 환율 1,227.00원 (-6.2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les and managem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won Lotte Mart, highlighting new developments like the Palistar and Medical Building, and offering services from a branch off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eok Sunil Real Estate, promoting various types of properties and services, including a branch office in Suwon.